『耘谷先生集抄詩史』에 관한 硏究*

A Study on *Ungokseonsaengjipchosisa* by Won Cheon-Seok

朴 文 烈(Park, Moon-Year)**

◁ 목 차 ▷

1. 緖 言
2. 耘谷의 生涯와 著述
 2.1 耘谷의 生涯와 思想
 2.2 耘谷의 著述과 刊行
3.「耘谷先生集抄詩史」
 3.1「耘谷先生集抄詩史」의 書誌와 書影
 3.2「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
 3.3「耘谷先生集抄詩史」의 刊行
 3.4「耘谷先生集抄詩史」의 校勘
4. 結 論
<참고문헌>

<초 록>

本 硏究는『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와 刊行 그리고 內容의 校勘 등을 分析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耘谷은 麗末鮮初의 현실을 證言하려고 노력하였던 인물이었으나, 끝내 故鄕인 原州의 雉岳山으로 들어가 平生을 隱士로 지냈다.

(2) 耘谷은『野史』와『耘谷集』을 自編하고 手稿하였으나, 현재 耘谷의 16世孫 元燮이 1858년에 木活字로 刊行한『耘谷行錄』만이 전해지고 있다.

(3)『耘谷先生集抄詩史』는 1603년에 寄齋 朴東亮이『耘谷集』을 抄錄하여 1冊으로 編次된 뒤, 耘谷의 10世孫인 元徽에 의하여 1694년에 木版本으로 刊行되었다.

(4)『耘谷先生集抄詩史』에 수록된 13題 18首의 詩篇을『耘谷行錄』에 수록된 내용과 相互 對比한 結果 적지 않은 異同이 있었다.

(5)『耘谷先生集抄詩史』는 編次의 性格과 收錄 內容 및 版本學的 特徵 등으로 미루어 地方 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要語: 耘谷, 元天錫, 耘谷集, 耘谷先生集抄詩史, 寄齋, 朴東亮, 元徽, 元燮

* 이 논문은 2010-2011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化情報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敎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1년 5월 24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www.kci.go.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compilation, publication and proofreading of *Ungokseonsaengjipchosis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Ungok Won Cheon-Seok was a person who tried to testify the reality of late Goryeo dynasty and early Joseon dynasty. But after all, he retired into Chiaksan in his home town, Wonju, and lived as a recluse for the rest of his life.

(2) Ungok directly complied and wrote *Yasa* and *Ungokjip* by himself. But only *Ungokhaengrok* that Won Eun, the sixteenth generation descendant of Ungok, printed the book with wooden types in 1858, was handed down today.

(3) Gijae Park Dong-Ryang abstracted *Ungokjip* in one volume in 1603, then Won Hwi, the tenth generation descendant of Ungok, printed the book with wooden types in 1694. He entitled the book *Ungokseonsaengjipchosisa*.

(4) The result of comparing 13 titles and 18 verses of poems in *Ungokseonsaengjipchosisa* with the poems of *Ungokhaengrok* shows many differences between two books.

(5) Based on editorial features, contained contents, and publishing characteristics, *Ungokseonsaengjipchosisa* deserves to be researched and preserved as well as designated as a local tangible cultural asset.

Key words: Ungok, *Ungokjip*, *Ungokseonsaengjipchosisa*, Won Cheon-Seok, Gijae, Park Dong-Ryang, Won Hwi, Won Eun

www.kci.go.kr

1. 緖 言

麗末鮮初의 學者이며 文人이었던 耘谷 元天錫(1330-?)은 高麗末期의 혼란한 政界를 개탄하며 原州의 雉岳山으로 들어가 隱遁으로 一生을 마감한 人物로 알려져 있다. 그의 詩集인 「耘谷行錄」에 수록되어 있는 詩를 통해서 볼 때, 그가 朝鮮王朝에 出仕하지 않은 것은 高麗王朝에 대한 忠義心의 發露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中國 殷朝의 甘盤[1]이나 伯夷[2]에 비유되는 人物로 評價되기도 한다.

耘谷은 晩年에 「野史」(6卷)와 「耘谷集」(3卷 2冊)을 著述하여 手稿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野史」는 國史에 저촉되는 점이 많아 禍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曾孫이 불사른 나머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耘谷集」은 오늘날 「耘谷行錄」(5卷 3冊)으로 전해지고 있다.[3] 특히 「耘谷行錄」에 收錄된 高麗와 朝鮮의 王朝 交替期의 歷史的 史實과 그의 所懷 등을 읊은 1,144首의 詩 중에는 그의 「野史」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적지 않은 詩篇들이 당시의 時局을 證言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後世의 史家들은 麗末鮮初의 政勢에 관해서 한결같이 耘谷의 證言을 따르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耘谷이 手稿하였던 「耘谷集」은 그의 生前에는 물론 後孫代에 이르러서도 祕藏시킨지 오래되어 그것을 閱覽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書名조차도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世間에 전해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고 말았다. 그 후 200년이 지난 萬曆 癸卯年(宣祖 36, 1603)에 寄齋 朴東亮(1569-1635)이 당시 江原道觀察使로 原州에 到任하여 耘谷의 手稿인 「耘谷集」 2卷[冊]을 求得하여 閱讀한 결과, 과연 그가 예전에 傳聞했던 것과는 달리 그 要點들이 한결같이

---

1) 甘盤: 中國 殷朝의 帝王인 武丁(高宗) 在位 때의 賢臣으로 高宗이 卽位하기 전에 甘盤에게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後에 帝王으로 卽位하자 그를 登用하여 宰相으로 삼았다는 故事에서 後代에는 帝王이 되기 전의 親舊나 師弟間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2) 伯夷: 中國 殷朝 孤竹君의 아들이며 叔齊의 형으로 殷朝가 멸망한 뒤 周朝의 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隱居하다 굶어죽었다고 전해진다.

3) 「耘谷行錄」은 오늘날 「耘谷集」·「耘谷先生文集」·「耘谷行錄」·「耘谷詩史」 등 다양한 書名으로 통용되고 있다.

www.kci.go.kr

特筆할만한 史實임을 認識하였다. 이에 寄齋는 「耘谷集」에 깃들어 있는 耘谷의 大節을 世間에 널리 傳布하여 標式으로 삼도록 함은 물론 風俗을 살피려는 자들과 史筆을 잡은 자들도 보고 採擇할 수 있도록 하고자, 不分卷 1冊으로 抄錄하고 編次하여 그 題名을 「耘谷先生集抄詩史」[4]라 하였던 것이다.

本稿는 耘谷의 生涯와 思想 및 著述을 바탕으로 「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와 刊行 및 內容의 校勘 등에 관하여 考究함으로써, 「耘谷先生集抄詩史」의 學術的·文化財的 價値의 究明은 물론 耘谷硏究의 基礎資料[5] 提供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 耘谷의 生涯와 著述

2.1 耘谷의 生涯와 思想

「原州元氏世譜」[6]와 「原州元氏耘谷派世稿」[7] 등에 나타나는 耘谷의 家系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4) 本書는 江原道 原州市 興業面 沙堤里 540의 武陵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武陵博物館은 1997년 5월에 學生의 감소로 廢校된 沙堤初等學校 校舍와 敷地를 임대하여 4년여의 준비 끝에 2001년 12월 5일 開館하였으며, 2005년 9월에 正式의 私立博物館으로 등록되었다. 設立者이자 館長인 김재환은 본래 傳統武藝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약 20여 년 전부터 각종 遺物을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古書·古文書·書畵類·民俗遺物·陶瓷器·土器 등 12,000여 점의 遺物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古書와 古文書의 수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古書 약 500여 점과 古文書 약 5,000여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古書와 古文書는 주로 購買를 통하여 수집한 것이라 원래의 所藏者(處)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文化財廳 編, 「一般動產文化財 多量所藏處 實態調査」 (大田: 文化財廳, 2009). '江原道 原州市 武陵博物館'條 參看).

5) 耘谷의 基礎資料는 <운곡 원천석, http://blog.naver.com/sik6644/>에 多樣하게 收錄되어 있다.

6)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全3卷) (大田: 譜典出版社, 1984).

7) 元暢圭 編, 「元州元氏耘谷派世稿」(鉛活字本) (廣州: 元暢圭, 1971) 卷3. '原州元氏系序表'條.

www.kci.go.kr

<表 1> 耘谷 元天錫의 家系

元鏡(始祖, 1) - 貞立(2) - 希英(3) - 枝和(4) - 始孫(5) - 胤祖(6) - 漢弼(7) - 錫千(8) - 丁儀(9) - 震明(10) - 三山(11) - 起圖(12) - 克富(13) - 宗儒(14) - 寶齡(15) - 時俊(16) - 悅(17) - ① ② ③

① 台輔(18) - 稀(19) - 致(20) - 尙乎(21) - 運之(22) - 善卿(23) - 漢弘(24) - 繼李(25) - 健(26) - 德裕(27) - 信立(28) - 壽彭(29)

② 允迪(18) - ④ ⑤ ⑥

③ 仁呂(18) - 松(19) - 克萬(20) - 自新(21) - 益壽(22) - 世豪(23) - 希德(24) - 得成(25) - 樂生(26) - 起宗(27) - 振燁(28) - 有正(29) - 潤三(30) - 明昌(31)

④ 天常(19) - 混(20) - 四端(21) - 課(22) - 晋亨(23) - 淑文(24)

⑤ **天錫**(19, 耘谷公派1) - ⑦ ⑧

⑥ 天祐(19) - 詷(20) - 有仁(21) - 孝忠(22)

⑦ 泍(20, 耘2) - 摠龍(21, 耘3) - 壽崑(22, 耘4) - 世卿(23, 耘5) - 順義(24, 耘6) - 峻(25, 耘7) - 祥(26, 耘8)

⑧ 泂(20, 耘2) - 自敦(21, 耘3) - 甫崑(22, 耘4) - ⑨ ⑩

⑨ 珪(23, 耘5) - 粹然(24, 耘6) - 繼宗(25, 耘7)

⑩ 璋(23, 耘5) - 瑩然(24, 耘6) - 英俊(25, 耘7) - 弼商(26, 耘8) - 潗(27, 耘9) - 履(28, 耘10) - 槐(29, 耘11) - 尙五(30, 耘12) - (沃+土)(31, 耘13) - 聖鉉(32, 耘14) - 澔(33, 耘15) - 用善(34, 耘16) - 杙(35, 耘17) - 炯軺(36, 耘18) - 暢圭(37, 耘19) - 圭鎬(38, 耘20) - 泳薰(39, 耘21) …

耘谷 元天錫[8]의 本貫은 原州이고 字는 子正이며 號는 耘谷이다.[9] 精勇別將

8)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全3卷) 卷上 (大田: 回想社, 1986), 7-12.
元天錫: 字子正 號耘谷 高麗國子進士 高麗忠肅王十七年庚午(1330)七月八日生 九十餘歲康寧 考終之年未嘗 墓在原州市杏邱洞雉岳山下石逕乙坐之原 配原城元氏 父宗簿寺令廣明 祖門下侍中弘弼 曾祖中書侍溫 外祖朴宏 墓在公墓階下 先生見麗季政亂 隱居雉岳山 一意韜晦 好學自修 太宗大王幼年時 嘗從受學 及登寶位 屢以禮召 先生抗義不屈 太宗大王 以甘盤舊恩 親訪其廬 先生 避匿于弁岩 弁岩 卽雉岳上峰岩穴也 上知其不可奪志 御坐其廬傍溪石上 命先生子泂 除基川守 召當時奴婢 厚賜食物 仍問先生避隱處 婢橫指他岩 引咎自投水 後人名其岩曰橫指岩 名其水曰嫗淵 名其御坐石曰太宗臺 先生資稟高潔 學問深粹 遭世混濁 見機高邁 超然若忘世者而其憂國悶時 慷慨感傷之志 形於諷詠陶寫之間 歷歷可見 逮乎革命之後 秉節義樹綱常 凜凜若秋霜白日 可與鄭圃隱金冶隱 爲殷三仁而深藏固晦 不欲人知 有似泰伯之無稱則殆二賢之未有也 一生忠赤 寓於直筆 著書六卷 堅封題表曰 非賢子孫勿妄開 傳之數世 有一曾孫開見 與國史不同 恐觸時諱 遂焚之 有詩集二卷有在 卽先生親筆 此所謂詩史也 ○圃隱鄭先生 以文貞公申先生事蹟 夜付先生 先生略因己見聞者 與我門僕 一齊痛慕者 發墓著誌 編爲四部 以酬自傷之心 且以俟

www.kci.go.kr

을 지낸 元悅을 祖父로 宗簿寺令을 歷任한 父親 元尤迪과 大將軍을 歷任한 李松堅의 따님인 母親 益興 李氏와의 슬하에서 3男 1女의 次子로 忠肅王 17년(1330) 7월 8일에 出生하였다.

耘谷은 젊어서부터 金剛山과 淮陽 등을 遊覽하는 등 出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文章과 學問으로 일관하였다. 26세이던 恭愍王 4년(1355)에 軍籍에 編入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三峯 鄭道傳(1342-1398)과 陶隱 李崇仁(1349-1392) 등과 함께 司馬試와 進士試에 합격한 적이 있었으나, 高麗末期의 혼란한 政界를 개탄하며 出仕를 단념한 채 한 번도 官界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壯年에 이르기까지 文章과 學問으로 京鄕間에 이름을 날렸으나, 外的으로는 紅巾賊이 王京에 쳐들어오고 內的으로는 政界가 혼란하여지자 홀연히 故鄕인 原州의 雉岳山으로 들어가 父母를 奉養하고 農事를 지으며 平生을 隱士로 지냈다.[10]

耘谷은 그간에 어린 딸이 病死하기도 하고 婦人과 死別하는 등의 고통을 春川・橫川・洪川 일대를 遊覽하거나 寧海・堤州・順興・榮州・安東・蔚珍・三陟・旌善・春州 일대를 遊覽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自身의 處地를 비유한

發明於後日云爾 ○退溪李先生曰 原城有信史 澤堂李公植詩曰 斯人樹綱常 有言垂日月 ○大明萬曆四十年壬子 刱建祠宇 於原州北三十里七峰 奉安先生位版 ○春秋祭享祝文曰 學傳洙泗 道屯首陽 一部詩史 萬古綱常 斯文之享 永世無彊 ○顯宗大王十四年癸丑 特命賜額 祭文曰 民厭麗德 天啓聖祖 一掃昏穢 萬物咸睹 展如之人 獨行不顧 隱居雉岳 永矢考槃 恭惟獻廟 念切甘盤 旣勤馹召 亦屈和鑾 志堅踰坦 匹夫難奪 能以禮下 俾遂高節 採薇西山 何損周德 垂釣桐江 實扶漢俗 究厥所就 豈無預養 少也好學 長益勉彊 優遊涵泳 深諭義理 遭時濁亂 蘊而莫試 暫遊國子 非爲筮仕 遯世無悶 高尙其志 風聲所及 異代興起 玆遣禮官 敬尊洞酌 數字華額 萬古矜式 ○萬曆丙申 漢江鄭先生逑按節時 祭先生墓 其文曰 山有蕨薇 可以療飢 室有琴書 可以自怡 湯幣慇懃 星宿雍容 穹天不顧 獨槪于胸 千古空山 一縷淸風 敬薦菲薄 尙鑑微衷 ○憲宗丙申 韓參判益相按節時 祭先生墓 其文曰 山窈而深 先生之心 山高而截 先生之節 萬古靑山 不崩不塞 謹將薄具 用信廻慕.

9) 元天錫 著, 元檥 編, 「耘谷行錄」(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石齋], [哲宗 9(1858)]). 事蹟. '石逕墓所事蹟[許穆]'條.
"先生原州人 姓元氏 諱天錫 字子正 高麗國子進士 見麗氏政亂 隱居獨行 號曰耘谷先生 及麗亡 入雉嶽山 終身不出 …."

10) 元天錫 著, 元檥 編, 「耘谷行錄」. 事蹟. '石逕墓所事蹟[許穆]'條.
"先生原州人 姓元氏 諱天錫 字子正 高麗國子進士 見麗氏政亂 隱居獨行 號曰耘谷先生 及麗亡 入雉嶽山 終身不出 …."

www.kci.go.kr

<耘老吟>·<夜坐自詠> 등을 비롯한 自詠詩를 짓거나 三峯 鄭道傳과 牧隱 李穡(1328-1396) 등과 交遊하며 지내기도 하였다.

耘谷은 45세이던 恭讓王 23년(1374)에 原州의 雉岳山 峻嶺의 弁巖으로 居處를 옮긴[11] 후에도 文章과 學問에 精進하며 儒·道·釋의 三敎가 한 가지 理致임을 力說하는 <三敎一理>의 詩[12]를 짓고 牧隱 李穡의 초청으로 神勒寺를 訪問[13]하는 등 새로운 價値觀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海東二賢讚>[14]의 詩作이나 都統使 崔瑩(1316-1388)이 被刑된 소식을 듣고 지은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15]과 定昌君(1345-1394, 恭讓王)을 王에 세우고 禑王과 昌王을 廢位한 소식을 듣고 지은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立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爲庶人>[16]·<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17] 등의 詩作은 高麗王朝의 歷史的 史實을 詩로 읊은 것이었다.

鬱憤으로 세월을 보내던 耘谷은 59세인 禑王 14년(1388) 2월에 病을 얻어 無盡廢寺로 居處를 옮기기도[18] 하고 이어서 弁巖의 南峯 아래에 陋拙齋를 짓기도[19] 하면서 <是日自詠>·<自詠>·<國望岵>·<秋晩寓懷>·<曉起吟>·<戊辰元日>·<己巳正朝>·<六十吟>·<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七月八日有感>·<讀宥旨>·<嘆世>·<述懷>·<秋懷>·<新國>·<感懷> 등의 多數의 自詠·自吟·懷古·感懷·述懷 등과 관련된 詩作을 하였다.

朝鮮이 開國되고 太宗이 卽位(1400)한 뒤 太宗은 일찍이 자신의 師傅를 지낸 적이 있는 耘谷을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耘谷을 불렀으나 應하지 않자, 이듬해(1401) 雉岳山에 있는 耘谷의 집으로 친히 찾아갔으나 耘谷은 자리를 피하고

11)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2. 詩. '甲寅三月移居弁巖新居 … 頌禱效斯干'條.
12)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3. 詩. '三敎一理(幷序)'條.
13)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3. 詩. '二十七日被韓山君召向神勒寺途中作'條.
14)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3. 詩. '海東二賢讚'條.
15)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4. 詩.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條.
16)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4. 詩. '聞今月十五日 … 以爲辛旽子孫廢爲庶人'條.
17)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4. 詩. '國有令 以前王父子賜死'條.
18)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3. 詩. '予二月下旬得疾三月晦 … 偶書一詩'條.
19) 元天錫 著, 元燦 編,「耘谷行錄」卷3. 詩. '頃者於弁巖南峯之下 … 以自詠'條.

www.kci.go.kr

國王을 만나지 않았다. 이에 太宗은 溪石에 올라 집을 지키던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耘谷의 아들 元泂(1363-?)을 基川縣監에 임명하였다.[20][21] 후일 太宗이 世宗에게 讓位하자 耘谷은 비로소 白衣를 입고 서울로 올라가 太宗을 만났다고 한다.

耘谷은 비록 鄕村에 隱居하며 생활하였으나 麗末鮮初의 격변하는 時局을 개탄하며 현실을 證言하려고 노력하였던 人物이다. 「耘谷行錄」이나 「耘谷先生集抄詩史」 등에 수록되어 있는 懷古詩 등을 통해서 볼 때, 耘谷이 끝내 朝鮮의 朝廷에 出仕하지 않은 것은 高麗王朝에 대한 忠義心의 發露였던 때문을 알 수 있다. 특히 滅亡한 高麗를 回想하며 지은 <懷古歌>[22]는 그의 대표적인 時調作品으로 전해지고 있다.

耘谷은 死後에 江原道 原州의 七峰書院에 配享[23]되었으며, 현재 耘谷의 墓所[24]는 原州市 杏邱洞 石逕村(돌갱이마을) 後山의 卯龍乙座辛向之原에 있다.

2.2 耘谷의 著述과 刊行

耘谷은 高麗末期에 原州의 雉岳山에 隱居하며 著述活動을 하였다. 그의 대표

---

20)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序. '耘谷先生文集序[鄭莊]'條.
"先生卽我太宗大王微時師也 見高麗政衰 遯荒於雉嶽山中 及大明建文庚辰 太宗大王纘承寶位 首以大官召 先生不應 翌年 上馳三百里躬臨廬 先生避不見 上知不屈 官其子泂基川縣監 召舊嬖婢語 坐門前石悵然久 後人名其石曰太宗臺 …."

21)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事蹟. '石逕墓所事蹟[許穆]'條.
"太宗累召不至 上高其義 嘗東遊幸其廬 先生避不見 上下谿石上 召守廬媼厚賜之 官其子泂爲基川縣監 後人名其石曰太宗臺 臺在雉嶽覺林寺傍."

22) 金天澤 編, 京城帝國大學 編, 「靑丘永言」 (京城: 京城帝國大學, 1930, 羽調), 7.
"興亡이 有數ᄒᆞ니 滿月臺도 秋草이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붓쳐시니 夕陽에 지나ᄂᆞᆫ 客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23) 그 외에도 耘谷은 江原道 原州市 杏邱洞 山37의 彰義祠, 江原道 橫城郡 書院面 倉村里의 梅峰書院, 黃海道 開城市 杜門洞의 杜門洞書院, 慶尙北道 靑松郡 巴川面 中坪里 257의 泗陽書院, 慶尙南道 泗川市 龍見面 溫井里의 景白祠, 全羅南道 長興郡 南面 삼대리 90의 景賢祠 등에 祭·配享되고 있다.

24) 耘谷의 墓域은 江原道 記念物 第75號로 指定(2000)되어 있으며, 原州市의 忠烈祠管理所에 의하여 管理되고 있다.

www.kci.go.kr

적인 著述은 그가 自編한 『野史』(6卷)와 『耘谷集』(3卷 2冊)으로 알려지고 있다.

耘谷의 晩年 저술인 『野史』에는 당시의 歷史的 史實과 時事를 直筆한 내용이 많아 家廟에 秘藏시키고 꺼내보지 말도록 遺言을 하였으나, 曾孫代에 이르러 祠堂에 時祀를 지낸 뒤 秘藏하던 『野史』를 꺼내보니 國史와는 달리 直筆된 內容이 많아 滅族의 禍를 입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모두 불태워 버렸다[25]고 한다. 그 결과 세상에 전해지는 耘谷의 저술은 自編한 『耘谷集』(3卷 2冊)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마저도 時事를 直筆한 내용이 적지 않아 後孫들이 秘藏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行해지지 않고 말았다.

그 후 200여년이 지난 宣祖 36년(1603)에 寄齋 朴東亮이 江原道 觀察使로 原州에 到任하여 手稿本 『耘谷集』 2卷[冊]을 求得하였다. 이에는 耘谷이 山人 釋子들과 더불어 往來하며 酬唱한 詩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가운데는 耘谷의 大節을 담은 詩篇과 時事를 直筆하여 읊은 詩篇들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었다. 이에 寄齋는 耘谷의 思想을 세상에 廣布하여 標式으로 삼고자 『耘谷集』을 抄錄하여 1冊으로 編次하고 그 題名을 『耘谷先生集抄詩史』[26][27]라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耘谷集』은 直筆과 忌諱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公開되지 못하고 世間에 行해지지도 못하였다. 直筆로 인한 秘藏과 公開가 어려웠던 『耘谷集』의 刊行은 우여곡절 끝에 1800년대에 이르러 2차에 걸쳐 推進된 바

---

25) 元天錫 著, 元墣 編, 『耘谷行錄』. 事蹟. 石逕墓所事蹟. '高麗國子進士耘谷先生墓[陽川許穆]'條.
"… 初 先生有藏書六卷 言亡國古事 戒子孫勿妄開 傳之累世 有子孫一人竊開之 大懼曰 吾家族矣 擧而燒之 其書不傳 猶有餘遺詩什 此所謂詩史者也 …."

26) 元天錫 著, 朴東亮 編, 『耘谷行錄』(木板本) ([發行地不明] : [元徽], [肅宗 20(1694)]). '耘谷先生集抄詩史序'條.
"嘗聞原州人元天錫在麗末隱居著書 … 公之詩二卷 皆公所自書 多與山人釋子所嘗往來酬唱 而其中若干首 卽公之大節所寓以存者 亟當廣布於世 爲之標式 遂抄而爲一册 編其歲月於其間而名之曰詩史 蓋觀風者之所不可已 而亦以備秉筆者採焉."

27) 詩集에 '史'를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退溪 李滉이 "耘谷의 詩는 歷史이다(李退溪曰 耘谷詩史也)"(元天錫 著, 元墣 編, 『耘谷行錄』 序. '耘谷先生文集序[鄭莊]'條)라고 한 데에서 비롯되어 寒岡 鄭逑도 "原城에 믿을 만한 歷史가 있다"고 하였으며, 元墣은 "詩에다 歷史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詩가 正直함을 뜻한다(詩以史名 志其直也)"(元天錫 著, 元墣 編, 『耘谷行錄』 跋. '耘谷行錄跋[元墣]'條)고 하였다.

www.kci.go.kr

있었다.

1차로 正祖 24년(1800)에 耘谷의 13世孫 元孝達(1694-1778)[28]이 宗人들과 상의하여 耘谷의 手稿本 「耘谷集」과 寄齋 朴東亮이 耘谷의 手稿本을 刪定하여 編次한 「耘谷先生集抄詩史」를 바탕으로 「耘谷先生集」이라는 題名으로 「耘谷集」을 刊行하기로 계획하고 鄭莊과 海左 丁範祖(1723-1801)의 序文까지 받아 刊行을 시도하였으나 어떤 緣由에서인지 刊行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간행을 主導하던 元孝達이 卒去하였던 때문에 中斷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차로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㙫(1807-1885)[29]이 家藏된 手稿本과 寄齋 朴東亮이 手稿本을 刪定하여 編次한 「耘谷先生集抄詩史」 및 13世孫 元孝達이

---

28) 元孝達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元鏡(始祖, 1) - 貞立(2) - 希英(3) - 枝和(4) - 始孫(5) - 胤祖(6) - 漢弼(7) - 錫千(8) - 丁儀(9) - 震明(10) - 三山(11) - 起圖(12) - 克富(13) - 宗儒(14) - 寶齡(15) - 時俊(16) - 悅(17) - 允迪(18) - **天錫**(19, 耘谷公派1) - 洞(20, 耘2) - 自敦(21, 耘3) - 甫崙(22, 耘4) - 璣(23, 耘5) - 希孟(24, 耘6) - 應龍(25, 耘7) - 景詮(26, 耘8) - 鎏(27, 耘9) - 振淸(28, 耘10) - 絳(29, 耘11) - 翊相(30, 耘12) - 處中(31, 耘13) - 孝達(32, 耘14) - 宅鎭(33, 耘15) - 用淵(34, 耘16) - (木+肅)(35, 耘17) - 顯參(36, 耘18) - 泰壽(37, 耘19) - 相鎬(38, 耘20) - 永淳(39, 耘21) - 鳳植(40, 耘22) - 文默(41, 耘23) …
元孝達: 字顯景 同中樞 肅宗甲戌(1694)六月七日生 正祖戊戌(1778)十一月二十五日卒 壽八十五 墓先君墓階下丑坐 配贈貞夫人全州李氏 父維常 肅宗癸酉三月十九日生 景宗乙巳五月十一日卒 墓原州西傳巖李氏先塋內艮坐 配贈貞夫人全州李氏 父熙績 肅宗己丑三月三十日生 英祖乙未十月十一日卒 墓合窆(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516-517).

29) 元㙫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元鏡(始祖, 1) - 貞立(2) - 希英(3) - 枝和(4) - 始孫(5) - 胤祖(6) - 漢弼(7) - 錫千(8) - 丁儀(9) - 震明(10) - 三山(11) - 起圖(12) - 克富(13) - 宗儒(14) - 寶齡(15) - 時俊(16) - 悅(17) - 允迪(18) - **天錫**(19, 耘谷公派1) - 洞(20, 耘2) - 自敦(21, 耘3) - 甫崙(22, 耘4) - 璣(23, 耘5) - 希孟(24, 耘6) - 應龍(25, 耘7) - 景諶(26, 耘8) - 鋐(27, 耘9) - 振河(28, 耘10) - 綸(29, 耘11) - 翊星(30, 耘12) - 尙中(31, 耘13) - 孝閔(32, 耘14) - 鼎鎭(33, 耘15) - 用泰(34, 耘16) - **㙫**(35, 耘17) - 顯星(36, 耘18) - 大圭(37, 耘19) - 達鎬(38, 耘20) - 澄(39, 耘21) - 鍾植(40, 耘22) …
元㙫: 字文彦 號三箱堂 純祖丁卯(1807)正月二十一日生 高宗乙酉(1885)十一月二十九日卒 墓原城郡地正面月松里後谷午坐 配全州李氏 父守一 祖益鎭 壬戌十二月二十三日生 己酉二月二十四日卒 壽四十八 墓原城郡地正面道五介砥平公墓階下辛坐 哲宗戊午刊行家傳耘谷親筆詩史編爲三卷[册](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506).

www.kci.go.kr

編次한『耘谷先生集』등을 바탕으로 編輯하고 卷末에는 附錄으로 여러 <事蹟>을 붙여 哲宗 9년(戊午, 1858)에 石齋에서 木活字로『耘谷行錄』을 開刊하였다.

內容의 編次는 耘谷의 手稿本과『耘谷先生集』에 수록된 次序와 마찬가지로 詩作의 時代順으로 收錄하였으나 그 題名은『耘谷行錄』이라 改題하였으며, 또한 耘谷의 手稿本『耘谷集』은 3卷 2冊이었으나 內容의 分量으로 인하여 初刊本『耘谷行錄』은 5卷 3冊으로 編次되었다. 이러한 緣由로 인하여 오늘날 世間에는『耘谷集』·『耘谷先生文集』·『耘谷行錄』·『耘谷詩史』등 다양한 書名으로 통용되고 있다.[30]

『耘谷行錄』의 編次와 收錄 內容 및 篇數를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耘谷行錄」의 編次와 收錄 內容

號	編 次	篇 名	編著者	標題數	增篇數	總篇數	備 考
01	卷頭(序)	詩史序	朴東亮	1		1	
02		耘谷先生文集序	鄭 莊	1		1	
03		-	丁範祖	1		1	
04	卷1	詩	元天錫	198	44	242	
05	卷2	詩	元天錫	107	53	160	
06	卷3	詩	元天錫	153	67	220	
07	卷4	詩	元天錫	101	76	177	
08	卷5	詩	元天錫	187	158	345	
09	事蹟(事蹟錄)	七峯書院事蹟		1		1	
10		春秋祭享祝文		1		1	
11		賜額祭文		1		1	顯宗14
12		七峯書院題詠	吳 翻	1		1	
13		七峯書院題詠	尹之復	1		1	
14		七峯書院題詠	黃敬中	1		1	
15		七峯書院題詠	李 植	1		1	

30) 初刊本『耘谷行錄』은 현재 奎章閣(古3428-359)과 國立中央圖書館(한45-가462)에 소장되고 있으며, 그 밖에 1865년에 후손 元容圭의 跋文이 追加된 6卷 4冊의 筆寫本이 奎章閣(古3428-359A)에 所藏되어 있다.

www.kci.go.kr

16		七峯書院題詠	李元鎭	1		1
17		山捌巖	李 植	1		1
18		山捌巖	鄭熙夔	1		1
19		海東樂府詞	鄭弘翼	1		1
20		[缺題]		1		1
21		石逕墓所事蹟	許 穆	1		1
22		祭文	鄭 逑	1		1
23		祭文	金昌翕	1		1
24		癸巳仲春…感吟一律	洪義祖	1		1
25		又	權 睟	1		1
26		又	金洛受	1		1
27		又	鄭鴻慶	1		1
28		又	李治進	1		1
29		又	許 儼	1		1
30		又	丁若璿	1		1
31		又	李圭采	1		1
32		又	沈東翼	1		1
33		又	鄭鴻順	1		1
34		又	沈啓宇	1		1
35		又	洪義升	1		1
36		又	韓致兢	1		1
37		癸巳改莎 … 慰安祭文		1		1
38		山神祭文	洪義祖	1		1
39		祭文	韓益相	1		1
40	卷末(跋)	耘谷先生事蹟錄後語	鄭亮欽	1		1
41		耘谷行錄跋	元 燮	1		1
	小計			746	398	1,144
				36	0	36
	總計			783	397	1,180

「耘谷行錄」은 <行錄> 5卷과 <事蹟>을 합하여 3冊으로 編次되어 있다.

「耘谷行錄」의 卷首에는 萬曆 癸卯年(1603, 宣祖 36) 여름(夏)에 江原道觀察使 寄齋 朴東亮이 지은 <耘谷先生集抄詩史序>를 비롯하여 後學 草溪 鄭莊의

www.kci.go.kr

<耘谷先生文集序> 및 正祖 24년(庚申, 1800) 정월(孟喜)에 海左 錦城 丁範祖가 지은 <[耘谷行錄序]>가 수록[31]되어 있다.

『耘谷行錄』의 卷1-卷5에는 辛卯年(1351)부터 甲戌年(1394)까지 耘谷이 지은 詩 746題 1,144首가 詩作의 時代順으로 수록[32]되어 있다.

卷1에는 辛卯年(1351)부터 己酉年(1369)까지의 198題 242篇의 詩가 詩作의 時代順으로 수록[33]되어 있다. 그 중에서 <辛丑十一月紅頭賊兵突入王京國家播遷 … 作二絶以賀太平云>(2絶)을 비롯하여 <謝榮親宴詩(幷引)上金牧伯>(2首)·<次姪湜所寄詩韻>(1首)·<耘老吟>(10首)·<促織詞(鷓鴣天)>(1首)·<白鷗詞 >(1首) 등 17수의 詩篇들은 手稿本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詩作의 시기를 詳考하여 哲宗 9년(1858)에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燮 등이 木活字本으로 刊行할 때에 手稿本의 次序에 맞도록 追加하여 收錄한 것이다.[34] 金剛山을 비롯한 關東과 嶺南 等地를 유람하며 지은 紀行詩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時事와 관련된 詩篇들로는 <國有禁酒之令聞提壺鳥>·<甲午十月 … 次板上韻>·<十五日發方山 … 以著衰亡之實云>·<卽事(紅亂始起)>·<十二月十七日同年鄭道傳 … 次韻以謝>·<辛丑十一月紅頭賊兵 … 作二絶以賀太平云>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신의 所懷를 읊은 <余自少有志於儒名者久矣今按部公幷錄於軍籍作詩以自寬>·<自詠>·<草蟲>·<病中書懷>·<耘老吟>·<正月十七日雪>·<秋晩>·<讀柳宗元集><首夏幽居>·<聞鶯>·<暮春>·<夏雲>·<苦雨>·<石竹花>·<夜雨>·<聞任尙書彈琴詩>·<秋日>·<病中作>·<野叟吟> 등의 詩篇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許同年仲遠以詩見寄分字爲韻二十八首>는 同年 許仲遠이 보낸 七言絶句의 '螢窓苦業一寒生 枉占原山薄行名 不識金蓮可憐燭 錦屛深處照何情'의 28字를 韻으로 삼아 詩와 詞로 지은 것으로 耘谷의 詩才가 드러나는 作品이다.

---

31)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序. [耘谷行錄序(丁範祖)]條.
32)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卷1-卷5.
33)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卷1.
34)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卷1. 詩. '白鷗詞'條.
"右十七首 逸於原稿 而以年月第次 係之于此."

www.kci.go.kr

卷2에는 庚戌年(1370)부터 乙丑年(1385)까지의 107題 160篇의 詩가 詩作의 時代順으로 수록[35]되어 있다. 時事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上河刺史詩>·<苦旱>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庚戌首夏書懷>·<秋思>·<暮春>·<桃花>·<夏日自詠>·<春寒>·<夜坐自詠>·<晩晴>·<甲寅三月移居弁巖 … 次韻>·<卽事>·<丙辰暮春>·<七月十日復用前韻>·<郊居寒食>·<暑中閑詠>·<淸明日自詠>·<暮春>·<冬雨寓感 >·<冬夜吟> 등의 자신의 所懷를 읊은 詩篇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卷3에는 丙寅年(1386)부터 戊辰年(1388)까지의 153題 220篇의 詩가 詩作의 時代順으로 수록[36]되어 있다. 時事에 관련된 작품으로는 <是月朝廷奉大明聖旨改制衣服 … 作四絶以誌之>·<海東二賢讚>·<四皓>·<自詠>·<有感(時田民兼幷之徒蜂起)>·<六道都統使崔相夢謁大明皇帝 … 作二絶以備忘云>·<贊趙相國胖>·<伏聞主上殿下奮義掃盡 … 詩以賀之>·<病中記聞>·<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卽位有感(二絶)>·<感事> 등의 詩篇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신의 所懷를 읊은 <是日自詠>·<春晩病起>·<自詠>·<秋居病中>·<丙寅冬至感懷示元都領>·<除夜子誠弟携壺來共話作一絶>·<丁卯年人日>·<閏六月>·<雨中卽事>·<三月上巳有感寄元少卿>·<食新蕨>·<古意>·<坐忘>·<雨夜書情>·<自詠六言扇對>·<眞感>·<秋雨>·<自詠>·<秋晩寓懷>·<曉起吟>·<自詠>·<卽事>·<十五日雨中卽事>·<冬至日寓懷>·<因病未赴庚申之期寄金生員祖兼簡座上諸公>·<除夜>·<戊辰元日>·<春日偶書>·<予二月下旬得疾三月晦移接無盡廢寺經夏二朔五月二十四日乃六月節也將欲遷居偶書一詩>·<六月初二日卽事>·<曉起>·<病中記聞>·<七月七日>·<卽事>·<山亭>·<秋居卽事>·<木稼>·<一月二十三日有雨>·<除夜> 등의 詩篇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余不幸早失主婦慮迷息失所索然守鰥迨今二十一年矣卽今婚嫁已畢稍弛念慮故作詩一首以自貽>는 喪妻하고 자식을 위해 21년 동안 홀아비로 지낸

35)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2.
36)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3.

www.kci.go.kr

心懷를 읊은 것이고 <三敎一理(幷序)>는 儒·道·釋이 한 가지 이치라는 점을 力說한 것이며 <二十七日被韓山君召向神勒寺途中作>은 牧隱 李穡의 招請으로 神勒寺를 방문하던 도중에 읊은 것이다.

卷4에는 己巳年(1389)부터 庚午年(1390)까지의 101題 177篇의 詩가 詩作의 時代順으로 수록[37]되어 있다. 이 시기는 易姓革命의 직전으로 時事를 直筆한 詩가 많다. 崔瑩의 賜死, 禑王·昌王의 廢位와 賜死, 牧隱 李穡의 귀양 등의 소식을 듣고 읊은 詩는 慷慨한 내용의 작품이다.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立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爲庶人>·<苦寒夜吟>·<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有感>·<記夢>·<讀宥旨>·<同年李令公(崇仁)被讒在忠州 … 次韻奉答> 등은 時事를 직필한 詩篇들이며, 자신의 소회를 읊은 <己巳正朝>·<正初齋居>·<六十吟>·<二十四日雨中獨坐>·<卽事>·<卽事>·<庚午元正>·<十二日立春>·<有感>·<二月三日雪中自詠>·<有感>·<自詠>·<卽事>·<春感>·<雨中卽事>·<感古>·<七月八日有感>·<十二月初一日>·<冬夜>·<除日曉起> 등의 詩篇들도 수록되어 있다.

卷5에는 辛未年(1391)부터 甲戌年(1394)까지의 187題 345篇의 詩가 詩作의 時代順으로 수록[38]되어 있다. 특히 朝鮮 建國 후에 지은 작품인 <賀朝>·<改新國號爲朝鮮>·<新國>·<伏覩奉金尺詞受寶籙致語慶而贊之>·<贊鄭二相所製四歌> 등은 朝鮮을 開國을 긍정하고 祝賀하는 내용의 詩篇들이며, <春初有感>·<卽事>·<山花>·<夜吟>·<卽事>·<中秋月>·<十六夜月>·<聞雁>·<自遣>·<九月十日>·<十二日有雪>·<牧隱相國對菊有感詩云 … 次韻>·<偶吟>·<十八日戲詠>·<是日卽事>·<夜坐有感>·<嘆世>·<奉寄李令公崇仁>·<奉寄李公令>·<秋齋雨中卽事>·<冬至>·<夜雨卽事>·<病中吟>·<歲暮書懷>·<次酒泉公館獨坐有感詩韻>·<病中牧伯使人惠藥。 詩以謝之>·<卽事>·<除夜>·<癸酉元日>·

37)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4.
38)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5.

www.kci.go.kr

<七日卽事>·<三月三日卽事>·<雨中卽事>·<卽事>·<四月十九日卽事>·<端午偶吟>·<幽居雨中>·<雨夜>·<病中吟>·<卽事>·<幽居卽事>·<小齋晨興>·<復用晨興詩韻>·<病中斁書>·<七月七日卽事>·<晝夜吟>·<十八日>·<自詠>·<重九卽事>·<述懷>·<復用前韻>·<自詠>·<感懷>·<新晴>·<秋懷>·<曉起梳頭>·<十二月二十六日立春卽事>·<十二月三十日>·<甲戌新正>·<二月初二日雨中雜詠>·<淸明日雨中卽事>·<初六日卽事>·<四月初一日>·<自詠>·<用晨興詩韻>·<夜興> 등은 자신의 所懷를 읊은 詩篇들이다.

<事蹟>의 '事蹟錄'[39]에는 耘谷을 奉安한 原州 七峯書院의 <七峯書院事蹟>·<春秋祭享祝文>·<賜額祭文>을 비롯하여 吳翻(1592-1634)·尹之復(1569-?)·黃敬中(1569-1630)·李植(1584-1647)·李元鎭(1594-1665)의 <七峯書院題詠>, 李植과 鄭熙夔(1690-?)의 <山搠巖>, 鄭弘翼(1571-1626)의 <海東樂府詞>, 筆者不明의 <缺題>, 許穆(1595-1682)의 <石逕墓所事蹟>, 鄭逑(1543-1620)와 金昌翕(1653-1722)의 <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癸巳年(1833) 봄에 耘谷의 墓所를 修理한 뒤에 지은 洪羲祖를 비롯한 權睟·金洛受·鄭鴻慶·李治進·許儼·丁若璿·李圭采·沈東翼·鄭鴻順·沈啓宇·洪羲升·韓致兢 등의 <癸巳仲春修耘谷先生墓猥側名於監董之末感吟一律>과 <癸巳改莎草時慰安祭文>, 洪羲祖의 <山神祭文>, 韓益相(1767-1846)의 <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末[40]에는 八溪 鄭亮欽의 <耘谷先生事蹟錄後語>와 哲宗 9년(1858)에 16世孫 元燮이 「耘谷行錄」을 木活字로 刊行하면서 지은 <耘谷行錄跋>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石齋開刊'의 刊記가 수록되어 있다.

39)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事蹟.
40) 元天錫 著, 元燮 編, 「耘谷行錄」 卷末.

www.kci.go.kr

3.『耘谷先生集抄詩史』

3.1『耘谷先生集抄詩史』의 書誌와 書影

『耘谷先生集抄詩史』[41]의 書誌事項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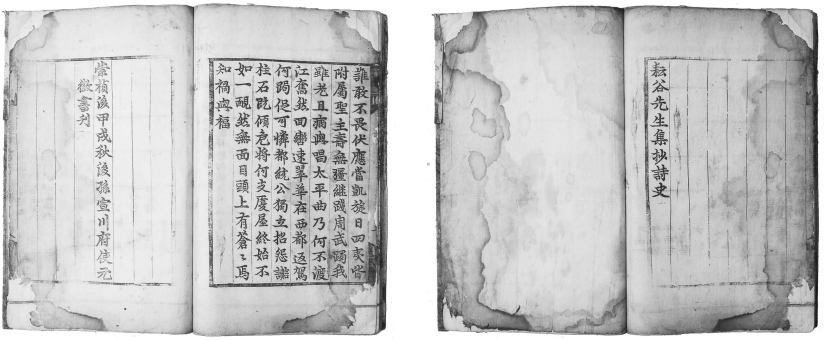
> 耘谷先生集抄詩史 / 元天錫(1330-?) 著 ; 朴東亮(1569-1635) 編 ; 元徽(1662-1722) 書.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 20(1694)].
> 不分卷 1冊(13張) : 四周雙邊, 半郭 26.6 × 19.5㎝, 有界, 6行11字, 黑・白口 混用, 上下內向1・2・3葉花紋魚尾 混用 ; 35.6 × 23.0㎝. 楮紙. 線裝(五針眼訂).
>
> 表題・卷頭題・卷末題・序題: 耘谷先生集抄詩史
> 序: 萬曆癸卯(1603, 宣祖 36)夏江原道觀察使朴東亮序
> 卷末刊記: 崇禎後甲戌(1694, 肅宗 20)秋後孫宣川府使元徽書刊
> 卷頭印文: □川後人, 柳軒, 仙齋居士
> 卷末墨書識文: 禽鳥鳴而復合 蝴蝶散而能飛 寒月明而天中 輕風凄而林間
> 保存狀態: 부분적인 毁損이 있어 專門 匠人의 補修가 必要함

<寫眞 1>「耘谷先生集抄詩史」의 書影

41) 元天錫 著, 朴東亮 編,『耘谷先生集抄詩史』(木板本) ([發行地不明] : [元徽], [肅宗 20 (1694)]).

42) 文化財廳 編,『一般動産文化財 多量所藏處 實態調査』(大田: 文化財廳, 2009). '江原道 原州市 武陵博物館'條.

www.kci.go.kr



<寫眞 1>「耘谷先生集抄詩史」의 書影(계속)

3.2「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

일찍이 寄齋 朴東亮이 宣祖 36년(1603)에 江原道 觀察使로 原州에 到任하여 手稿本「耘谷集」2卷[册]을 求得하여 閱讀한 후, 耘谷의 思想을 세상에 廣布하여 標式으로 삼고자 手稿本「耘谷集」2卷[册]을 抄錄하여「耘谷先生集抄詩史」1册으로 編次한 바 있다.

이러한 這間의 事情은 寄齋의 <耘谷先生集抄詩史序>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 <耘谷先生集抄詩史序>의 全文을 飜譯하면 다음과 같다.

> <운곡선생집초시사서(耘谷先生集抄詩史序)>
> 일찍이 原州人 元天錫이 고려 말기에 은거하면서 지은 저서에 '禑王과 昌王의 부자는 辛氏에서 出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 조선조에 들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일생을 마쳤으니 그의 맑은 풍모와 높은 절개만은 圃隱[43]과 冶隱[44] 등의 諸公들과 伯仲之間이었다는 것,

43) 圃隱: 鄭夢周(1337-1392)를 지칭하는 것이다. 本貫은 延日이고 字는 達可이며 號는 圃隱이다. 고려 三隱의 한 사람으로 1401년(태종 1) 영의정에 추증되고 益陽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중종 때 文廟에 배향되었고 개성의 崧陽書院 등 11개 서원에 祭享되었다. 문집에「圃隱集」이 있다.

44) 冶隱: 吉再(1353-1419)를 지칭하는 것이다. 本貫은 海平이고 字는 再父이며 號는 冶隱 ·金烏山人 등이고 諡號는 忠節이다. 淸風書院에 祭享되었으며, 文集에「冶隱集」·「冶隱續集」

www.kci.go.kr

그리고 子孫들이 그의 著書를 祕藏한지 오래되어 그것을 열람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세간에 전해지지 않게 되고 말았다는 것' 등의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다.

그 후 2백년이 지난 뒤에 내[박동량]가 按節使[45]로서 原州에 到任하였을 때 마침 그의 시집인 「耘谷集」을 求得하게 되었는데, 비록 그 기록의 분량은 많지 않았으나 예전에 전해 들었던 사실과는 달랐으며, 그 要點들은 모두 特筆할만한 사실이었다.

오호라! 바야흐로 禑王이 王位를 계승할 적에는 數三의 元老인 崔都統[46]·牧隱[47]·圃隱 등의 몇몇 公들이 健在하였던 때문에 오직 당시에는 上下間에 異議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牧隱이 처음에는 '마땅히 前王의 아들을 擁立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가 昌이 폐위되자 비로소 '禑의 父子는 辛旽의 子孫이다'고 하였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昌王을 폐위시킬 도리가 없었던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빙자하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王氏의 祭祀는 이미 恭愍王 이후로 단절되고 말았을 것이며, 몇몇 公들이 精忠[48]과 大節[49]로 竭誠[50]하고 盡瘁[51]하였으나 死去한 뒤로는 그마저도 그치고 말았으니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는가! 하물며 朝廷의 綱紀[52]가 그다지 潰裂[53]되지 않은 상태로 軍國의 大政이 몇몇 公들에게 一任되어 있어 僞君을 폐위하고 國姓이 健在하도록 하여 결코 타인의 후예에게 嗣位되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들의 進退와 取舍는 이미 마음속으로 강구되어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었다.

저 역사를 編修하는 무리들도 일찍이 王氏의 國祿을 먹지 않은 자들이 없었으나 한번 죽고 말리라는 각오도 없었고 더욱이 禑王의 부자가 辛氏라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恭愍王이 병풍 뒤에서 洪倫[54] 등의 외설스런 짓을 觀淫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지금의 觀者들조차도 더럽게 여겨 침을 뱉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禑王와 관련된 한 가지의 事實만으로 그 歪曲의 정도를 모두 짐작하기에는

이 있고 言行錄인 「冶隱言行拾遺錄」이 있다.

45) 按節使: 한 方面을 맡아 다스리는 臨時 外官職으로 觀察使의 職務를 의미하는 것이다.

46) 崔都統: 崔瑩(1316-1388)을 지칭하는 것이다. 本貫은 東州이고 諡號는 武愍이다.

47) 牧隱: 李穡(1328-1396)을 지칭하는 것이다. 本貫은 韓山이고 字는 穎叔이며 號는 牧隱이고 諡號는 文靖이다. 益齋 李齊賢의 門下生이며 三隱의 한 사람이다. 학문과 정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으며, 著書에 「牧隱詩藁」와 「牧隱文藁」가 있다.

48) 精忠: 自己를 돌보지 않는 純粹한 忠義, 精細하고 純一한 忠誠을 의미하는 것이다.

49) 大節: 大義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지키는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50) 竭誠: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盡瘁: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2) 綱紀: 나라의 법과 풍속, 풍습에 대한 紀律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53) 潰裂: 헐거나 해어져 찢어지는 것,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4) 洪倫(?-1374): 高麗 恭愍王의 寵臣으로 本貫은 南陽이다.

www.kci.go.kr

충분하지 않으나 미미한 公의 한마디 言辭가 아니었더라면 千百載 후까지도 여전히 그 誤謬를 답습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서도 과연 東國에 歷史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忠臣과 義士가 人民과 國家에 유익한 존재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牧隱과 圃隱같은 몇몇 公들이 朝廷에 우뚝 서계셨기 때문에 天命과 人心이 사라진 뒤에도 수십년 동안 扶持될 수 있었던 것이며, 公과 같이 재야에서 은거하면서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 詩歌를 吟詠하고 회포를 서술하면서 事實을 근거로 直書[55]함으로써 一言一字도 모두 충성스런 鬱憤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비단 王氏가 부자간이라는 것이 斷定되었을 뿐만 아니라 『麗史』[56] 중의 난삽한 언사와 망령된 기록들도 이를 근거로 辨證할 여지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草野에 궁하게 묻혀 살거나 세상으로 나가 벼슬한 出處가 동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邦家)를 위한 빛이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만약 당시의 君王들이 일찍부터 忠直과 奸邪를 분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을 委任하고 그 경륜을 펼치도록 하였더라면 牧隱과 圃隱 등이 어찌 종당에 文天祥[57]과 陸秀夫[58] 등의 무리와 같이 되었을 것이겠으며, 芝草를 먹고 국화를 먹는 것도 어찌 公이 좋아서 自托한 일이었을 것이겠는가! 가히 생각할수록 슬픈 일일 뿐인저!

公의 詩稿 2卷[册]은 모두 公이 친히 저술한 것으로 대체로 山人[59]이나 釋子[60]들과 더불어 일찍부터 왕래하면서 酬唱한 것이 많으니, 그 중의 약간 首는 바로 公의 大節이 깃들어 있어 속히 세간에 널리 傳布하여 標式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여겨 마침내 1책으로 抄錄하고 그간의 歲月에 따라 編次하여 그 題名을 『詩史』라 하였다. 대개 풍속을 살피려는 자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또한 史筆을 잡을 자들이 採擇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萬曆 癸卯년(1603) 여름에 江原道觀察使 朴東亮은 삼가 쓰다.[61]

---

55) 直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6) 麗史: 『高麗史』를 의미하는 것이다.

57) 文天祥(1236-1282): 字는 宋瑞・履善이고 號는 文山이다. 江西省 吉水縣 출생으로 1255년 20세 때 진사에 수석으로 합격한 수재였다. 元朝의 世祖(쿠빌라이칸)가 그의 재능을 아껴 벼슬을 간절히 권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死刑되었다. 詩에 능하여 獄中의 작품 『正氣歌』로 유명하며 文集에 『文山全集』이 있다.

58) 陸秀夫(1236-1279): 중국 南宋이 멸망할 때 宰相을 지냈던 인물이다. 1276년 蒙古軍에게 宋朝가 패한 후 陳宜中・張世傑 등과 함께 益王・衛王을 옹립하고 宋朝 왕실을 지키려 했으며, 1279년 元軍의 공격을 받자 배로 도망하다가 衛王을 업고 바다로 투신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때 妻子息은 먼저 물에 빠뜨렸는데, 후일 나라를 위해 節義를 잘 지킨 인물로 稱誦되고 있다.

59) 山人: 깊은 산 속에서 世上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60) 釋子: 釋迦의 弟子, 佛弟子, 僧侶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61) 元天錫 著, 朴東亮 編, 『耘谷先生集抄詩史』. '耘谷先生集抄詩史序'條.

www.kci.go.kr

한편, 寄齋 朴東亮이 耘谷의 手稿本『耘谷集』2卷[册]을 抄錄하여 編次한『耘谷先生集抄詩史』1册에 收錄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表 3>「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와 收錄 內容

號	面次	篇名	題名	篇數	年度	備考
01	1-5	序	耘谷先生集抄詩史序(朴東亮)	1	1603	
02	1A-1B	詩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卽位有感	2絶	1388	
03	1B-2A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位庶人(九月)	2	1389/9	
04	2A		洪武二十三年庚午有感	1	1390	
05	2B-3A		洪武二十年丁卯海東二賢讚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	1	1387	
06	3A		判三司事李(御諱)	1	1387	
07	3A-3B		感事	1	1388	
08	3B-4B		洪武二十二年己巳聞都統使崔公被刑寓嘆	3	1389	
09	4B-5A		苦寒吟	2	1389	
10	5B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	1	1389	
11	5B-6A		有感	1	1388	

"嘗聞原州人元天錫在麗末隱居著書 言禑・昌父子非辛出事甚悉 逮我朝 閉門終身 其淸風峻節 直可與圃・冶諸公相伯仲 而子孫祕其書久益密 人無得以見者 幷與其名遂泯泯不傳於世 後二百年 余按節到是州 適得其所爲詩耘谷集 雖所紀不多 與向所聞異 要之不失爲特筆也 嗚呼 方禑之嗣王位也 數三元老如崔都統・牧隱・圃隱諸公猶在也 不惟當時上下無異議 牧隱首曰 當立前王之子 及昌之廢也 始曰 禑父子乃旽之子孫 蓋不如是則昌無可廢之道 特爲此以籍之耳 不然 王氏之祀已絶於恭愍之後 而以數公精忠大節 竭誠盡瘁 死而後已者 果爲誰乎 況朝廷綱紀不甚潰裂 而軍國大政 一委之數公 則廢僞君存國姓 必不出他人之後 其所進退取舍 講于中者固已審矣 彼修史輩亦嘗食王氏之祿者 旣不能一死 又以禑父子冒之辛 此猶不足 至記恭愍從屛後觀洪倫等褻行事 至今觀者莫不醜唾 據禑一事 不足知其誣 微公一言 千百載下 必將襲謬不已 可謂東國有史乎 若是乎忠臣義士之有益於爲人國家也 有牧隱・圃隱諸公而立於朝 則當天命人心已去之後 能有所扶持 至於數十年之久 其隱而在下也有如公者 則吟詠陶寫之間 據實直書 一言一字無非忠憤所激 不但王氏之爲父子者定 麗史中亂言妄書亦將因此 而或有辨證之地 則窮達出處雖不同 其爲邦家之光一也 當時之君 早辨忠邪 終始委任 得以展布所蘊 牧隱・圃隱豈終爲文天祥・陸秀夫之徒 而茹芝餐菊亦豈公之所欲自托者哉 可悲也夫 公之詩二卷 皆公所自書 多與山人釋子所嘗往來酬唱 而其中若干首 卽公之大節所寓以存者 亟當廣布於世 爲之標式 遂抄而爲一册 編其歲月於其間而名之曰詩史 蓋觀風者之所不可已 而亦以備秉筆者採焉 萬曆癸卯夏 江原道觀察使朴東亮 謹書."

www.kci.go.kr

12	6A-6B		四皓	1	1387
13	6B-7A		自詠	1	1387
14	7A-7B		洪武二十一年戊辰病中紀聞	1	1388
15	8A	刊記	崇禎後甲戌秋後孫宣川府使元徽書刊	1	1694
16	8B	末題	耘谷先生集抄詩史	1	1694

「耘谷先生集抄詩史」1冊에 收錄된 內容은 宣祖 36년(1603)에 寄齋 朴東亮이 쓴 <耘谷先生集抄詩史序>와 肅宗 20년(1694)에 耘谷의 10世孫 元徽(1662-1722)가 書刊하면서 쓴 <崇禎後甲戌秋後孫宣川府使元徽書刊>의 刊記와 卷末題인 <耘谷先生集抄詩史>를 제외하면 耘谷의 詩篇은 13題 18首가 收錄되어 있다.

「耘谷先生集抄詩史」1冊에 收錄된 이들 13題 18首의 詩篇은 寄齋 朴東亮이 耘谷의 手稿本인「耘谷集」에 수록된 詩篇 중에서 時事의 白眉가 될 만한 詩篇만을 抄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들 13題 18首의 詩篇은 耘谷의 詩篇 중에서도 歷史性이 가장 높은 詩篇인 것이다.

「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와 收錄 內容을「耘谷行錄」과 對比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耘谷先生集抄詩史」와「耘谷行錄」의 編次와 收錄 內容

番號	「耘谷先生集抄詩史」(1冊)			「耘谷行錄」(5卷3冊)			備 考
	題 名	篇	典 據	題 名	篇	典 據	
01	耘谷先生集抄詩史序	1	頭/01A-05B	耘谷詩史序	1	頭/01A-02B	
02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卽位有感(二絶)	2	01A-01B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卽位有感(二首)	2	3/33A	篇數
03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爲庶人	2	01B-02A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立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廢爲庶人	2	4/13A-13B	題名

www.kci.go.kr

04	有感	1	02A	有感	1	4/14B	題名
05	海東二賢讚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	2	02B 02B	海東二賢讚 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	1	3/17A 3/17A-17B	
06	判三司事李(御諱)		03A	判三司事	1	3/17B	
07	感事	1	03A-03B	感事	1	3/33A	
08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三首)	3	03B-04B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三首)	3	4/02A-02B	
09	苦寒吟(二首)	2	04B-05A	苦寒夜吟(二首)	2	4/13B	題名
10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	1	05B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	1	4/13B-14A	
11	有感	1	05B-06A	有感	1	4/17A	
12	四皓	1	06A-06B	四皓	1	3/20A	
13	自詠	1	06B-07A	自詠	1	3/22B	
14	病中紀聞	1	07A-07B	病中記聞	1	3/32B	題名

이상을 통해서 볼 때 耘谷의 手稿本인『耘谷集』과 寄齋 朴東亮이 手稿本을 刪定하여 編次하고 耘谷의 10世孫 元徽가 刊行한『耘谷先生集抄詩史』및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燮이 耘谷의 手稿本과 寄齋의『耘谷先生集抄詩史』를 바탕으로 編次하여 刊行한『耘谷行錄』에는 다소간의 異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하여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 5>「耘谷集」·「耘谷先生集抄詩史」·「耘谷行錄」의 各種 事項別 對比

號	內 容	『耘谷集』	『耘谷先生集抄詩史』	『耘谷行錄』	備考
01	著·編者	元天錫[著]	元天錫[著]·朴東亮[編]	元天錫[著]·元燮[編]	
02	題名	[耘谷集]	耘谷先生集抄詩史	耘谷行錄	
03	編次時期	[1400年頃]	1603年頃	1858年頃	
04	刊寫形態	手稿本	木版本	木活字本	
05	卷冊數	3卷 2冊	不分卷 1冊	5卷·附錄 3冊	
06	篇數	[1,127首]	13題 18首	746題 1,144首	
07	排列	[時代順]	-	時代順	
08	序文作者	-	朴東亮	朴東亮 鄭莊 丁範祖	

www.kci.go.kr

09	序文題	-	耘谷先生集抄詩史序	耘谷先生集抄詩史序 耘谷先生文集序 [無題]
10	跋文者	-	-	鄭亮欽 元墐
11	跋文題	-	-	耘谷先生事蹟錄後語 耘谷行錄跋
12	刊行與否	未刊	刊行	刊行
13	版下本	-	元徽	-
14	刊行地	-	[宣川]	[광주]
15	刊行處	-	[宣川府使元徽]	石齋開刊
16	刊行時期	-	1694年	1858年頃

宣祖 36년(1603)에 寄齋 朴東亮에 의해 편차된 「耘谷先生集抄詩史」는 耘谷의 手稿인 「耘谷集」이 編次된 지 200여년 후에 編次되기는 하였으나, 哲宗 9년(1858)에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墐에 의해 編次된 「耘谷行錄」에 비해 250여년 먼저 編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종 20년(1694)에 耘谷의 10世孫 元徽에 의해 刊行된 「耘谷先生集抄詩史」는 哲宗 9년(1858)에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墐에 의해 刊行된 「耘谷行錄」에 비해 160여년 먼저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耘谷先生集抄詩史」의 刊行

「耘谷先生集抄詩史」는 일찍이 宣祖 36년(1603) 여름에 寄齋 朴東亮에 의하여 不分卷 1册으로 編次되었으나, 그 刊行은 肅宗 20년(1694) 가을에 耘谷의 10世孫인 宣川府使 元徽[62]에 의하여 木版本으로 刊行되었다. 元徽는 「耘谷先生集

62) 元徽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元鏡(始祖, 01) - 貞立(02) - 希英(03) - 枝和(04) - 始孫(05) - 胤祖(06) - 漢弼(07) - 錫千(08) - 丁儀(09) - 震明(10) - 三山(11) - 起圖(12) - 克富(13) - 宗儒(14) - 寶齡(15) - 時俊(16) - 悅(17) - 允迪(18) - **天錫**(19, 耘谷公派1) - 洞(20, 耘2) - 自敦(21, 耘3) - 甫崙(22, 耘4) - 璣(23, 耘5) - 希孟(24, 耘6) - 應龍(25, 耘7) - 景訥(26, 耘8) - 欽(27, 耘9) - 振洙(28, 耘10) - **徽**(29, 耘11) - 一端(30, 耘12) - 燮(31, 耘13) - 好謙(32, 耘14) - 橚(33, 耘15) - 用熙(34, 耘16) - 浹(35, 耘17) - 顯植(36, 耘18) - 錫圭(37,

www.kci.go.kr

抄詩史」의 刊行 뿐만 아니라 「耘谷先生集抄詩史」의 木版刊行을 위한 版下本의 書寫者이기도 하다.

元徽는 耘谷의 10世孫으로 현종 6년(1665)에 무과에 급제하여 忠淸道·慶尙道·平安道·咸鏡道의 節度使와 訓練都正를 역임한 父親 元振洙(1637-1710)와 通德郎을 지낸 沈泓의 따님인 靑松 沈氏와의 膝下에서 7男 중의 次男으로 顯宗 3년(1662)에 出生하였다.

元徽의 行歷을 整理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6> 元徽의 行歷

年代	朝 代	月 日	年歲	內 容	備 考
1662	顯宗 03	05 17	01	出生하다	63)
1687	肅宗 13		26	武科에 及第하다	64)
1690	肅宗 16		29	宣傳官으로 赴京하다	65)
1694	肅宗 20	06 30	33	獻納 沈極이 公의 處罰을 論啓하다	66)
		秋		朴東亮 編의 「耘谷先生集抄詩史」를 刊行하다	67)
1704	肅宗 30	04 11	43	掌令 崔啓翁이 公을 비난하는 疏를 올리다	68)

耘19) - 昌鎬(38, 耘20) - 淳(39, 耘21) - 相洙(40, 耘22) …
元徽: 字子美 顯宗壬寅(1662)五月十七日生 丁卯武科 庚午 以宣傳官 獨使赴京 準事而歸 歷四道節度使 景宗壬寅(1722)二月卒 壽六十一 墓長湍郡西面甘岩洞戌坐 配貞夫人 江陵金氏 父宣傳官柄 辛丑生 墓合祔 公在寧邊府使 歲値饉荒 出自家錢穀 賑民甚均 監司趙泰老狀啓 上曰可嘉 特賜表衣一襲 景宗甲辰二月致祭 祭文不可盡記 禮官正郎柳升鉉來行(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1-92).

63)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1-92.
"元徽: 字子美 顯宗壬寅(1662)五月十七日生."

64)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2.
"丁未武科."

65)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2.
"庚午 以宣傳官 獨使赴京 準事而歸."

6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6月 30日(丙寅)條.
"獻納沈極論 宣川府使元徽 當初出身 已極不正 托跡兇賊之門 作爲心腹之寄 密受訶察蹤跡陰秘 數年之間 驟叨闕任 請削去仕版 再啓從之."

67) 元天錫 著, 朴東亮 編, 「耘谷先生集抄詩史」. '刊記'條.
"崇禎後甲戌(1694)秋後孫宣川府使元徽書刊."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0年 4月 11日(庚辰)條.

www.kci.go.kr

1705	肅宗 31	09 17	44	諫院에서 公의 敍用을 反對하다	69)
1717	肅宗 43	05 14	56	黃海道兵馬節度使에 除授되다	70)
		09 12		司憲府에서 黃海兵使의 罷職을 建議하다	71)
1718	肅宗 44	01 20	57	右議政 趙泰采와 右參贊 李健命이 公의 狀啓를 王世子에게 進達하다	72)
1721	景宗 01	12 11	60	平安兵使에 除授되다	73)74)
		12 22		王世弟 殺害謀議에 연루되다	75)

"掌令崔啓翁上疏曰 … 槪觀數十年來 以賂發身者 前後何限 而姑擧其近來最甚者言之 元德徽·元徽·李碩根之徒 本以庸流 歷踐賤仕 至如許崟者 起自私賤 而受字牧之任 官方汙濁 一至於此 貽累淸朝 實非爲少 爲閫帥爲守令者 不亦羞乎."

69) 春秋館 編,「朝鮮王朝實錄」. 肅宗 31年 9月 17日(戊寅)條.
"諫院啓曰 … 永興府使元徽 以素負罪累之人 遽授北路雄府 除目之下 物情俱駭 請罷職不敍 竝不允."

70) 春秋館 編,「朝鮮王朝實錄」. 肅宗 43年 5月 14日(丁卯)條.
"以李敏英爲承旨 黃欽爲知中樞 元徽爲黃海道兵馬節度使 特除宋相琦爲兼判義禁."

71) 春秋館 編,「朝鮮王朝實錄」. 肅宗 43年 9月 12日(癸亥)條.
"憲府申前達 又言 黃海兵使元徽 爲人巧佞 隨時納媚 剝割軍民 徒事肥己 請罷職 世子不從."

72) 春秋館 編,「朝鮮王朝實錄」. 肅宗 44年 1月 20日(己巳)條.
"王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趙泰采曰 … 黃海兵使元徽狀言 勑行連續 策應難堪 請於兵使瓜限二周年內 一勑之需 自本營料理 而或有再勑三勑 則以詳定餘米會減 蓋本營分牧之後 物力凋弊 亦宜許之 而一勑所入 令監營 參酌定給宜矣 世子竝從之 右參贊李健命曰 臣新自關西來 旣有沿路所聞 敢此仰陳矣 關西關防之廢弛久矣 頃因北咨 有用意防守之語 平壤·定州 皆已新築 黃海兵營 亦令修築 物力凋殘 不能擧行 而兵使元徽以爲本營地勢 前帶平野 有難防禦 不若先築棘城之爲宜云 宜令帥臣 與道臣相議 就其緊要處待今秋始役矣 世子可之."

73) 春秋館 編,「景宗實錄」. 景宗 1年 12月 11日(丁卯)條.
"特除禮曹判書李光佐爲平安監司 金海府使元徽爲平安兵使 徽以庸調武夫 處身行已 奸譎不正 而猝以特旨畀重閫 至於光佐 素負重望 新蒙拔擢 而遽出外藩 物情疑駭."

74) 春秋館 編,「景宗改修實錄」. 景宗 1年 12月 11日(丁卯)條.
"特除李光佐爲平安道觀察使 元徽爲平安兵使."

75) 春秋館 編,「景宗改修實錄」. 景宗 1年 12月 22日(戊寅)條.
"宦官朴尙儉鎖淸暉門 欲害王世弟 王大妃發尙儉奸 竝其黨文有道及宮人石烈·必貞 下獄鞫之 … 尙儉·有道 卽王世弟所敎交構者也 尙儉 少學於沈益昌 家居隔墻 常常往來而本寧邊人 金一鏡·元徽 嘗經府使 故因緣親熟 至是 益昌·一鏡·徽與尙儉 瀾漫密議謀進一邊人 及儲位旣定 疑懼益深 遂生疑間動搖之計 致有鎖門·矯旨之變 … 一鏡·元徽 皆經府使 故與儉情密者久 … 元徽以平兵下直時 臣問前所欲爲者 今乃爲之果好乎 徽曰 好矣 仍曰 一鏡輩當局 欲蕩平天下 所謂蕩平 欲盡殺老論 專用南少矣 徽子日瑞與尙儉交結往來之狀 人孰不知."

www.kci.go.kr

1722	景宗 02	03 28	61	白望의 供招에 公이 언급되다	76)
		05 07		沈檍과 鄭宇寬의 供招에 언급되다	77)
		05 08		崔泓의 供招에 언급되다	78)
		05 08		이미 卒去하다	79)80)
1724	景宗 04		+02	禮官 正郎 柳升鉉이 致祭하다	81)
1725	英祖 01	07 21	+03	義禁府에 親行하여 罪를 參酌하여 決定하다	82)

76) 春秋館 編, 「景宗實錄」. 景宗 2年 3月 28日(癸丑)條.
"禁府堂上金一鏡胥命時 白望招以爲 虎龍言 卽今少論·南人謀害世弟 而少論自許淸論 有緩論·峻論之別 而南人 滿山枯木一葉靑 而從宦者小 我是南人庶孼 聞元徽·金叅判·柳慶裕·沈壽觀·吳瑞鍾·張宇相輩 相與謀事先來 若出來事不成 則仍以朝廷權勢 移動東宮 事成則吾當告變云 渠旣上變 故吾亦上變云 金叅判 卽一鏡也 自鞫坐出而待命."

77) 春秋館 編, 「景宗實錄」. 景宗 2年 5月 7日(辛卯)條.
"鞫廳囚沈檍·鞫廳罪人宇寬招曰 … 外朝則尹就商·元徽·沈益昌等謀議 益昌家晝夜屯聚 … 鞫廳 更推宇寬 其招又擧元徽·沈檀·沈益昌 行銀於尙儉·石烈事爲言 …."

78) 春秋館 編, 「景宗實錄」. 景宗 2年 5月 8日(壬辰)條.
"崔泓供曰 … 至於尹就商·元徽·沈益昌·沈檀·金一鏡五人 亦不知面 全所昧昧 則宇寬所謂同議魁首等說 自然落空云云."

79) 春秋館 編, 「景宗實錄」. 景宗 2年 5月 8日(壬辰)條.
"鞫廳請對入侍 領議政趙泰耆奏曰 … 沈檀·金一鏡 乃宇寬所謂渠輩之魁首 而猶不敢謂之識面 元徽·尹就商 亦宇寬招中緊引者 而徽則已死 就商則宇寬亦曰 不相識面 …."

80)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2.
"景宗壬寅(1722)二月卒 壽六十一."

81)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2.
"景宗甲辰(1724)二月致祭 祭文不可盡記 禮官正郎柳升鉉來行."

82) 春秋館 編, 「英祖實錄」. 英祖 1年 7月 21日(丙辰)條.
"是日 上自社壇回駕 至義禁府前路 下親臨禁府 疏釋獄囚之命 … 日瑞 徽之子也 徽與森·天任·就商·慶裕·受觀等 聚銀貨賂尙儉之狀 出於宇寬·荊佐之供 而徽已死 不問日瑞 則無以究覈 故拿鞫者也 … 日瑞供曰 宇寬之供有曰 十一月見尙儉 則尙儉以爲 今日元兵使當來會於沈廷玉家云 而臣父則十月 已爲金海府使而赴任 元不在京 豈有十一月來會之理 此乃白地構誣者也 廷玉之供 謂臣乘夜往來於逆儉之家云 而臣是喪人 何以曳裾往來於宦者之家乎 上曰 汝已忘辛丑冬事耶 命讀其時文案 使之聞之 而至就商爲訓將 元徽爲平安兵使處 上曰 辛丑冬事 卽此條也 日瑞供曰 臣與廷玉 雖有一面之分 而足跡不到於其門者 已爲十餘年矣 且其時則臣是喪人 臣父有疾 豈能往來而謀議乎 上復問曰 汝父有病 不能出入 則何以赴平安兵營乎 日瑞供曰 臣父於辛丑十二月 除平安兵使 以病呈辭 終不得遞 乃於壬寅正月 迫於朝令 不得已赴任矣 上曰 元徽死於何時 諸臣咸對曰 元徽之死 在於三月 先來軍官入來之翌日也 … 仍下敎曰 森·天任·廷玉·廷紳 竝解枷 森移送西間 重煥·日瑞 更令嚴刑得情."

www.kci.go.kr

元徽는 肅宗 13년(1687)에 26세의 나이로 武科에 及第한 뒤 肅宗 16년(1690)에 宣傳官으로 赴京하여 準事하고 귀국한 바 있었으며, 33세이던 肅宗 20년(1694) 가을에는 宣川府使로 재직하면서 寄齋 朴東亮이 編次한 「耘谷先生集抄詩史」의 版下本을 書寫하여 木版으로 刊行하였다.[83] 그 뒤 黃海道와 平安道 등 四道의 節度使를 역임하였으나, 景宗 元年(1721)에 王世弟(英祖) 殺害謀議에 연루되어 供招를 받다가 景宗 2년(1722) 2월에 61歲로 卒去하였다.[84]

특히 宣傳官을 역임한 江陵 金柄의 따님인 그의 夫人은 그가 寧邊府使로 재직 중이던 당시에 饉荒이 들자 自家의 錢穀을 털어 府民들을 救恤하였는데, 監司 趙泰老(1658-1717)가 國王께 狀啓하자 國王이 嘉事로 여겨 表衣 一襲을 特賜한 바 있었다[85]고 한다.

3.4 「耘谷先生集抄詩史」의 校勘

宣祖 36년(1603)에 寄齋 朴東亮에 의하여 編次되고 仁祖 12년(1634) 가을에 耘谷의 10世孫인 宣川府使 元徽에 의하여 刊行된 木版本 「耘谷先生集抄詩史」에는 寄齋 朴東亮의 <耘谷先生集抄詩史序> 1篇과 耘谷의 詩篇 중에서 歷史性이 가장 뛰어난 13題 18首의 詩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木版本 「耘谷先生集抄詩史」에 수록된 내용들을 哲宗 9년(1858)에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燮이 編次하고 石齋에서 開刊한 木活字本 「耘谷行錄」과 대비할 때 字句 등에 있어서 相互間에 多少의 異同을 보이고 있다.

木版本 「耘谷先生集抄詩史」에 수록된 內容을 중심으로 木活字本 「耘谷行錄」에 수록된 內容을 相互 對比하고 整理한 結果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83) 元天錫 著, 朴東亮 編, 「耘谷先生集抄詩史」. '刊記'條.
"崇禎後甲戌(1694)秋後孫宣川府使元徽書刊."

84)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2.
"景宗壬寅(1722)二月卒 壽六十一."

85)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卷1 (大田: 譜典出版社, 1984), 92.
"… 配貞夫人江陵金氏 父宣傳官柄 辛丑生 墓合祔 公在寧邊府使 歲値饉荒 出自家錢穀賑民甚均 監司趙泰老狀啓 上曰可嘉 特賜表衣一襲 …."

www.kci.go.kr

<表 7>「耘谷先生集抄詩史」와「耘谷行錄」에 收錄된 原文의 校勘

番號	面 行	「耘谷先生集抄詩史」	「耘谷行錄」	備考
001	01A 01	耘谷先生集抄詩史序	耘谷先生集抄詩史序	86)
002	01A 02	嘗聞原州人元天錫在麗末	嘗聞原州人元天錫在麗末	
003	01A 03	隱居著書言禑昌父子非辛	隱居著書言禑昌父子非辛	
004	01A 04	出事甚悉逮我	出事甚悉逮我	
005	01A 05	朝閉門終身其淸風峻節直可	朝閉門終身其淸風峻節直可	
006	01A 06	與圃冶諸公相伯仲而子孫	與圃冶諸公相伯仲而子孫	
007	01B 01	秘其書久益密人無得以見	秘其書久益密人無得以見	
008	01B 02	者並與其名遂泯泯不傳	者並與其名遂泯泯不傳	
009	01B 03	於世後二百年余按節到是	於世後二百年余按節到是	
010	01B 04	州適得其所爲詩耘谷集雖	州適得其所爲詩耘谷集雖	
011	01B 05	所記不多與向所聞異要之	所紀不多與向所聞異要之	
012	01B 06	不失爲特筆也嗚呼方禑之	不失爲特筆也嗚呼方禑之	
013	02A 01	嗣王位也數三元老如崔都	嗣王位也數三元老如崔都	
014	02A 02	統牧隱圃隱諸公猶在也不	統牧隱圃隱諸公猶在也不	
015	02A 03	惟當時上下無異議牧隱首	惟當時上下無異議牧隱首	
016	02A 04	曰當立前王之子及昌之廢	曰當立前王之子及昌之廢	
017	02A 05	也始曰禑父子乃旽之子孫	也始曰禑父子乃旽之子孫	
018	02A 06	盖不如是則昌無可廢之道	蓋不如是則昌無可廢之道	
019	02B 01	特爲此以籍之耳不然王氏	特爲此以籍之耳不然王氏	
020	02B 02	之祀已絶於恭愍之後而以	之祀已絶於恭愍之後而以	
021	02B 03	數公精忠大節竭誠盡瘁死	數公精忠大節竭誠盡瘁死	
022	02B 04	而後已者果爲誰乎況朝廷	而後已者果爲誰乎況朝廷	
023	02B 05	綱紀不甚潰裂而軍國大政	綱紀不甚潰裂而軍國大政	
024	02B 06	一委之數公則廢僞君存國	一委之數公則廢僞君存國	
025	03A 01	姓必不他人之後其所進退	姓必不出他人之後其所進退	
026	03A 02	取舍講于中者固已審矣彼	取舍講于中者固已審矣彼	
027	03A 03	修史輩亦嘗食王氏之祿者	修史輩亦嘗食王氏之祿者	
028	03A 04	旣不能一死又以禑父子冒	旣不能一死又以禑父子冒	
029	03A 05	之辛此猶不足至記恭愍從	之辛此猶不足至記恭愍從	
030	03A 06	屛後觀洪倫等褻行事至今	屛後觀洪倫等褻行事至今	
031	03B 01	觀者莫不醜唾據一禑一事	觀者莫不醜唾據禑一事	
032	03B 02	不足知其誣微公一言千百	不足知其誣微公一言千百	
033	03B 03	載下必將襲謬不已可謂東	載下必將襲謬不已可謂東	
034	03B 04	國有史乎若是乎忠臣義士	國有史乎若是乎忠臣義士	
035	03B 05	之有益於爲人國家也有牧	之有益於爲人國家也有牧	

86) 元天錫 著, 元槩 編,「耘谷行錄」. 耘谷行錄序. 序. '耘谷先生集抄詩史序'條.

www.kci.go.kr

036	03B 06	隱圃隱諸公而立於朝則當	隱圃隱諸公而立於朝則當	
037	04A 01	天命人心已去之後能有所	天命人心已去之後能有所	
038	04A 02	扶持至於數十年之久其隱	扶持至於數十年之久其隱	
039	04A 03	而在下也有如公者則吟詠	而在下也有如公者則吟詠	
040	04A 04	陶寫之間據實直書一言一	陶寫之間據實直書一言一	
041	04A 05	字無非忠憤所激不但王氏	字無非忠憤所激不但王氏	
042	04A 06	之爲父子者言麗史中亂言	之爲父子者定麗史中亂言	
043	04B 01	妄書亦將因此而或有卞證	妄書亦將因此而或有辨證	
044	04B 02	之地則窮達出處雖不同其	之地則窮達出處雖不同其	
045	04B 03	爲邦家之光一也使當時之	爲邦家之光一也當時之	
046	04B 04	君早卞忠邪終始委任得以	君早辨忠邪終始委任得以	
047	04B 05	展布所蘊牧隱圃隱豈終爲	展布所蘊牧隱圃隱豈終爲	
048	04B 06	文天祥陸秀夫之徒而茹芝	文天祥陸秀夫之徒而茹芝	
049	05A 01	粲菊亦豈公之所欲自托者	餐菊亦豈公之所欲自托者	
050	05A 02	哉可悲也夫公之詩二卷皆	哉可悲也夫公之詩二卷皆	
051	05A 03	公所自書多與山人釋子嘗	公所自書多與山人釋子所嘗	
052	05A 04	往來酬唱而其中若干首卽	往來酬唱而其中若干首卽	
053	05A 05	公之大節所寓以存者亟當	公之大節所寓以存者亟當	
054	05A 06	廣布於世爲之標式遂抄而	廣布於世爲之標式遂抄而	
055	05B 01	爲一册編其歲月於其間而	爲一册編其歲月於其間而	
056	05B 02	名之曰詩史盖觀風者之所	名之曰詩史蓋觀風者之所	
057	05B 03	不可已而亦以備秉筆者採	不可已而亦以備秉筆者採	
058	05B 04	焉	焉	
059	05B 05	萬曆癸卯夏江原道觀察使朴	萬曆癸卯夏江原道觀察使朴	
060	05B 06	東亮序	東亮謹書	
061	01A 01	耘谷先生集抄詩史序	耘谷先生集抄詩史序	87)
062	01A 02	伏聞	伏聞	
063	01A 03	主上殿下遷于江華 元子卽	主上殿下遷于江華 元子卽	
064	01A 04	位有感(二絶)	位有感(二首)	
065	01A 05	聖賢相遇適當時天運循環自此	聖賢相遇適當時天運循環自此	
066	01A 06	知畎畝豈無憂國意更殫忠懇念	知畎畝豈無憂國意更殫忠懇念	
067	01A 07	安危	安危	
068	01A 08	新主臨朝舊主遷蕭條海郡但風	新主臨朝舊主遷蕭條海郡但風	
069	01B 01	烟天關正路誰開閉要見明明鑑	煙天關正路誰開閉要見明明鑑	
070	01B 02	在前	在前	
071	01B 03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	88)
072	01B 04	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	立王位前王父子以爲辛旽子孫	

87) 元天錫 著, 元糞 編,「耘谷行錄」卷3. 詩.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卽位有感(二首)'條.
88) 元天錫 著, 元糞 編,「耘谷行錄」卷4. 詩. '聞今月十五日…以爲辛旽子孫廢爲庶人'條.

www.kci.go.kr

073	01B 05	廢爲庶人	廢爲庶人	
074	01B 06	前王父子各分離萬里東西天一	前王父子各分離萬里東西天一	
075	01B 07	涯可使一身爲庶類寸心千古不	涯可使一身爲庶類正名千古不	
076	01B 08	遷移	遷移	
077	02A 01	祖王信誓應乎天餘澤流傳數百	祖王信誓應乎天餘澤流傳數百	
078	02A 02	年分揀假眞何不早彼蒼之鑑照	年分揀假眞何不早彼蒼之鑑照	
079	02A 03	明然	明然	
080	02A 04	洪武二十三年庚午	-	
081	02A 05	有感	有感	89)
082	02A 06	浮雲起滅是尋常消長隨時理亦	浮雲起滅是尋常消長隨時理亦	
083	02A 07	當世故溺人終不弭擧頭天地自	當世故溺人終不弭擧頭天地自	
084	02A 08	玄黃	玄黃	
085	02B 01	洪武二十一年丁卯	-	
086	02B 02	海東二賢讚前冢宰六道都統	海東二賢讚	90)
087	02B 03	使崔瑩	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	
088	02B 04	海東聲價動中原帷幄軍籌簡不	海東聲價動中原帷幄軍籌簡不	
089	02B 05	煩忠壯心懷輕海岳生成德業大	煩忠壯心懷輕海岳生成德業大	
090	02B 06	乾坤三韓柱石功彌重六道雲霓	乾坤三韓柱石功彌重六道雲霓	
091	02B 07	望益尊天爲我邦扶社稷願令公	望益尊天爲我邦扶社稷願令公	
092	02B 08	壽等崑崙	壽等崑崙	
093	03A 01	判三司事李(御諱)	判三司事	91)
094	03A 02	朔雲常帶太平痕知是明公盡所	朔雲常帶太平痕知是明公盡所	
095	03A 03	存隻手已曾扶日月片言端合定	存雙手已曾扶日月片言端合定	
096	03A 04	乾坤滿懷智勇專憂國一代英雄	乾坤滿懷智勇專憂國一代英雄	
097	03A 05	半在門出入兩朝兼將相始終功	半在門出入兩朝兼將相始終功	
098	03A 06	業舌難論	業舌難論	92)
099	03A 07	感事	感事	
100	03A 08	掃除兇暴政惟新海外聲華白日	掃除兇暴政惟新海外聲華白日	
101	03B 01	春擧國興兵驅士卒築城移粟動	春擧國興兵驅士卒築城移粟動	
102	03B 02	人民豈徒辛苦終無益還恐欺謾	人民豈徒辛苦終無益還恐欺謾	
103	03B 03	必有隣林下不堪談世事對山終	必有隣林下不堪談世事對山終	
104	03B 04	日莫搖唇	日莫搖唇	
105	03B 05	洪武二十二年己巳	-	

89)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4. 詩. '有感'條.
90)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3. 詩. 海東二賢讚. '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條.
91)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3. 詩. 海東二賢讚. '判三司事'條.
92)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3. 詩. '感事'條.

www.kci.go.kr

106	03B 06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三首)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三首)	93)
107	03B 07	水鏡埋光柱石頹四方民俗盡悲	水鏡埋光柱石頹四方民物盡悲	
108	03B 08	哀赫然功業終歸朽確爾忠誠死	哀赫然功業終歸朽確爾忠誠死	
109	04A 01	不灰紀事靑編曾滿帙可憐黃壤	不灰紀事靑篇曾滿帙可憐黃壤	
110	04A 02	已成堆想應杳杳重泉下掛眼東	已成堆想應杳杳重泉下抉眼東	
111	04A 03	門憤未開	門憤未開	
112	04A 04	獨立朝端無敢干直將忠義試諸	獨立朝端無敢干直將忠義試諸	
113	04A 05	難爲從六道黔黎望能致三韓社	難爲從六道黔黎望能致三韓社	
114	04A 06	稷安同列英雄顔更厚未亡邪佞	稷安同列英雄顔更厚未亡邪佞	
115	04A 07	骨猶寒更逢亂日誰爲計可笑時	骨猶寒更逢亂日誰爲計可笑時	
116	04A 08	人用事姦	人用事姦	
117	04B 01	我今聞訃作哀詩不爲公悲爲國	我今聞訃作哀詩不爲公悲爲國	
118	04B 02	悲天運難能知否泰邦基未可定	悲天運難能知否泰邦基未可定	
119	04B 03	安危銛鋒已折嗟何及忠膽常孤	安危銛鋒已折嗟何及忠膽常孤	
120	04B 04	恨不支獨對山河歌此曲白雲流	恨不支獨對山河歌此曲白雲流	
121	04B 05	水摠嘘嘻	水摠噫嘻	
122	04B 06	苦寒吟(二首)	苦寒夜吟(二首)	94)
123	04B 07	掀天朔吹怒號林日氣熹微屢作	掀天朔吹怒號林日色熹微屢作	
124	04B 08	陰兎窟狐丘何窘迫鵬程鵠路有	陰兎窟狐邱何窘迫鵬程鵠路有	
125	05A 01	浮沈硯池始動知霜重爐火初殘	浮沈硯池始動知霜重爐火初殘	
126	05A 02	覺夜深氷雪險途移粟輩不堪勞	覺夜深氷雪險途移粟輩不堪勞	
127	05A 03	力又勞心	力又勞心	
128	05A 04	休將朝市笑山林山有淸光樹有	休將朝市笑山林山有淸光樹有	
129	05A 05	陰但愛雲烟亘今古從敎日月自	陰但愛雲煙亘今古從敎日月自	
130	05A 06	昇沈朔風朔雪寒威重江郡江都	升沈朔風朔雪寒威重江郡江都	
131	05A 07	憤氣深耿耿不眠多念慮一燈明	憤氣深耿耿不眠多念慮一燈明	
132	05A 08	暗照丹心	暗照丹心(時前王在江陵子王在江華)	
133	05B 01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	95)
134	05B 02	位高鍾鼎是君恩反自含讐已滅	位高鍾鼎是君恩反自含讎已滅	
135	05B 03	門一國必應流景祚九原難可雪	門一國必應流景祚九原難可雪	
136	05B 04	幽冤古風淪喪時還泰新法淸平	幽冤古風淪喪時還泰新法淸平	
137	05B 05	道益尊專向玉墀呼萬歲願施優	道益尊專向玉墀呼萬歲願施優	
138	05B 06	渥及山村	渥及山村	
139	05B 07	有感	有感	96)
140	05B 08	制度綱常在海東狂瀾旣倒沒遺	制度綱常在海東狂瀾旣倒沒遺	

93)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4. 詩.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三首)'條.
94)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4. 詩. '苦寒夜吟(二首)'條.
95)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4. 詩.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條.
96) 元天錫 著, 元燮 編,「耘谷行錄」卷4. 詩. '有感'條.

www.kci.go.kr

141	06A 01	風雷霆起滅言辭表日月昇沈掌	風雷霆起滅言辭表日月昇沈掌	
142	06A 02	握中**飧**菊湘**潭**心更苦茹芝商嶺	握中**餐**菊湘**濱**心更苦茹芝商嶺	
143	06A 03	念無窮悵然回首蒼梧遠斜照**茫**	念無窮悵然回首蒼梧遠斜照**微**	
144	06A 04	茫草色空	茫草色空	
145	06A 05	四皓	四皓	97)
146	06A 06	四皓入商山本欲避秦虐**栖**身香	四皓入商山本欲避秦虐**棲**身香	
147	06A 07	桂林散慮翠松壑亦有憂世心一	桂林散慮翠松壑亦有憂世心一	
148	06A 08	爲漢儲作	爲漢儲作	
149	06B 01	人心無古今天理因可度有客老	人心無古今天理因可度有客老	
150	06B 02	**烟**霞壯氣塞寥廓空將採芝歌獨	**煙**霞壯氣塞寥廓空將採芝歌獨	
151	06B 03	詠還獨**宿**	詠還獨**酌**	
152	06B 04	自詠	自詠	98)
153	06B 05	昨夜雨蕭蕭曉來山霧深脩然**整**	昨夜雨蕭蕭曉來山霧深脩然**正**	
154	06B 06	衣坐不覺發長吟東籬有秋色菊	衣坐不覺發長吟東籬有秋色菊	
155	06B 07	蘂粲黃金繞叢自怡悅淸香熏素	蘂粲黃金繞叢自怡悅淸香熏素	
156	06B 08	襟孤芳傲霜冷苦哉君子心撫己	襟孤芳傲霜冷苦哉君子心撫己	
157	07A 01	再三嘆朝陽輝遠林	再三嘆朝陽輝遠林	
158	07A 02	**洪武二十一年戊辰**	-	
159	07A 03	病中**紀**聞	病中**記**聞	99)
160	07A 04	病夫少歡趣衰朽同草木自春至	病夫少歡趣衰朽同草木自春至	
161	07A 05	夏末呻吟守幽獨近聞有朝旨除	夏末呻吟守幽獨近聞有朝旨除	
162	07A 06	年**改號服**抽兵盡丁數上下事馳	年**號改服**抽兵盡丁數上下事馳	
163	07A 07	逐貔貅十餘萬欲渡鴨江綠方期	逐貔貅十餘萬欲渡鴨江綠方期	
164	07A 08	遼海路壯氣浮**簇**纛虎威振中原	遼海路壯氣浮**旗**纛虎威振中原	
165	07B 01	誰敢不畏伏應當凱旋日四夷皆	誰敢不畏伏應當凱旋日四夷皆	
166	07B 02	附屬聖主壽無彊繼踐周武躅我	附屬聖主壽無彊繼踐周武躅我	
167	07B 03	雖老且病與唱太平曲乃何不渡	雖老且病與唱太平曲乃何不渡	
168	07B 04	江奮然回轡速翠華在西都**返**駕	江奮然回轡速翠華在西都**反**駕	
169	07B 05	何跼促可憐都統公獨立招怨讒	何跼促可憐都統公獨立招怨讒	
170	07B 06	柱石旣傾危將何支廈屋終始不	柱石旣傾危將何支廈屋終始不	
171	07B 07	如一覩然無面目頭上有蒼蒼焉	如一覩然無面目頭上有蒼蒼焉	
172	07B 08	知禍與福	知禍與福	
173	08A 04	**崇禎後甲戌秋後孫宣川府使元**	-	
174	08A 05	**徽書刊**	-	
175	08B 08	**耘谷先生集抄詩史**	-	

97) 元天錫 著, 元槩 編,「耘谷行錄」卷3. 詩. '四皓'條.
98) 元天錫 著, 元槩 編,「耘谷行錄」卷3. 詩. '自詠'條.
99) 元天錫 著, 元槩 編,「耘谷行錄」卷3. 詩. '病中記聞'條.

www.kci.go.kr

宣祖 36년(1603)에 寄齋 朴東亮에 의해 編次되어 肅宗 20년(1694)에 耘谷의 10世孫 元徽에 의해 刊行된 「耘谷先生集抄詩史」와 哲宗 9년(1858)에 耘谷의 16世孫 三箱堂 元燦에 의해 編次되고 刊行된 「耘谷行錄」과는 적지 않은 異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耘谷行錄」은 耘谷의 手稿本이었던 「耘谷集」과도 결코 적지 않은 異同이 있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結 論

이상에서 麗末鮮初의 學者이며 文人이었던 耘谷 元天錫(1330-?)의 生涯와 思想 및 著述을 바탕으로 「耘谷先生集抄詩史」의 編次와 刊行 그리고 內容의 校勘 등에 관하여 考究한 바, 이를 종합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耘谷 元天錫은 麗末鮮初의 격변하는 時局을 개탄하며 현실을 證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故鄕인 原州의 雉岳山으로 들어가 農事를 지으며 平生을 隱士로 지냈다. 그가 끝내 朝鮮의 朝廷에 出仕하지 않은 이유는 高麗王朝에 대한 忠義心의 發露에서였으며, 특히 滅亡한 高麗를 回想하며 지은 <懷古歌>는 그의 대표적인 時調作品으로 전해지고 있다.

(2) 耘谷은 原州의 雉岳山에 隱居하면서도 「野史」(6卷)와 「耘谷集」(3卷 2冊)을 自編하고 手稿하였다. 「野史」에는 당시의 國史와는 달리 歷史的 史實과 時事를 直筆한 내용이 많아 滅族의 禍를 당할 것을 염려한 曾孫이 모두 불사른 결과 「耘谷集」만 세상에 전해졌으나 이마저도 時事를 直筆한 내용이 적지 않아 後孫들이 秘藏함으로써 널리 行해지지 못하였다.

(3) 「耘谷集」의 刊行은 1800년대에 이르러 2차에 걸쳐 추진된 바 있었다. 1차는 正祖 24년(1800)에 耘谷의 13世孫 元孝達이 「耘谷先生集」이라는 題名으로 刊行하기로 계획하였으나 刊行되지 못하였으며, 2차는 耘谷의 16世孫 元燦이 哲宗 9년(戊午, 1858)에 石齋에서 木活字로 「耘谷行錄」 5卷 3冊을 開刊하였다.

(4) 「耘谷先生集抄詩史」는 宣祖 36년(1603)에 寄齋 朴東亮이 耘谷의 思想을

www.kci.go.kr

세상에 廣布하여 標式으로 삼고자 『耘谷集』을 抄錄하여 1冊으로 編次한 것으로 耘谷의 詩篇 13題 18首가 收錄되어 있다. 이는 耘谷의 手稿인 『耘谷集』이 編次된 지 200여년 후에 編次된 것이며, 『耘谷行錄』에 비해 250여년 먼저 編次된 것이다.

⑸ 寄齋 朴東亮이 편차한 『耘谷先生集抄詩史』는 耘谷의 10世孫인 元徽에 의하여 版下本이 제작되어 肅宗 20년(1694) 가을에 木版本으로 刊行되었다. 이는 哲宗 9년(1858)에 元爕에 의해 刊行된 『耘谷行錄』에 비해 160여년 먼저 刊行되었다.

⑹ 『耘谷先生集抄詩史』에 수록된 13題 18首의 詩篇을 哲宗 9년(戊午, 1858)에 石齋에서 木活字로 刊行된 『耘谷行錄』에 수록된 내용과 相互 對比한 結果 적지 않은 異同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耘谷行錄』은 耘谷의 手稿本 『耘谷集』과도 결코 적지 않은 異同이 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⑺ 『耘谷先生集抄詩史』는 編次의 性格과 收錄 內容 및 版本學的 特徵 등으로 미루어 地方 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참고문헌>

金天澤 編, 京城帝國大學 編. 『靑丘永言』. 京城: 京城帝國大學, 1930.

文化財廳 編. 『一般動產文化財 多量所藏處 實態調査』. 大田: 文化財廳, 2009.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全3卷. 大田: 回想社, 1986.

原州元氏大同譜所 編. 『原州元氏世譜』. 全3卷. 大田: 譜典出版社, 1984.

元暢圭 編. 『元州元氏耘谷派世稿』. 鉛活字本. 光州: 元暢圭, 1971.

元天錫 著, 朴東亮 編. 『耘谷先生集抄詩史』. 木板本. [發行地不明] : [元徽], [肅宗 20(1694)].

元天錫 著, 元爕 編. 『耘谷行錄』.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石齋], [哲宗 9(18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운곡 원천석: <http://blog.naver.com/sik6644/>.

www.kci.go.kr

www.kci.go.kr